『동의수세보원』의 사상체질 심리유형 연구* - 조선 건국에 관한 역사적 인물 중심 -

최 구 원**

1. 시작하는 말
2.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체질 심리유형
3. 조선 건국에 관한 인물의 심리유형과 사상체질
 - 1) 이성계의 심리유형 분석
 - 2) 이방원의 심리유형 분석
 - 3) 정몽주의 심리유형 분석
 - 4) 정도전의 심리유형 분석
4. 맺는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건국에 관한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서 밝힌 사상철학과 사상체질에 근거하여 사상체질별 심리유형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사상체질 의학적 논리의 바탕에는 인간의 심리유형에 대한 실용적이며 철학적인 사고가 중심이 되고 있기에, 체질적 특징에 따라 언행이 다르고 그에 따라 노력하고 경계해야 할 내용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상체질 및 그 심리유형을 밝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사상체질별 심리유형 10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사료와 개인 문집 등에서 조선 건국에 관련한 동시대의 인물들인 이성계, 이방원, 정몽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7513).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ckwon2385@hanmail.net)

주, 정도전의 말과 행동 기록을 추출한 다음 항목마다 각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대응시켜 사상체질별 심리유형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역사적 인물들의 특징 및 이해 방면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상체질 변별에서의 특히 부족한 심리유형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다각적으로 이해하여 종합적으로 인물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성찰해보는 계기도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사료의 기록이 지니는 한계성은 있으나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상체질의학의 근본을 다시 세우고 사상체질의 연구 범주를 확장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주요어: 『동의수세보원』, 이제마의 사상철학, 사상체질 심리유형, 역사적 인물, 조선건국

1. 시작하는 말

이제마(李濟馬, 1837~1900)의 『동의수세보원』은 중국의 의학인 중의학과 구별되는 한국의 한의학을 대표하는 의학서로서 특히 사상체질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1권의 「성명론」, 「사단론」, 「확충론」, 「장부론」과 제4권의 「광제설」, 「사상인변증론」을 통해 사상의학의 철학적 근거 및 기론(氣論) 특히 사상체질별 심리유형을 고찰할 수 있다. 『동의수세보원』 「성명론」과 「사단론」에서는 사상체질별 타고난 애·노·희·락(哀怒喜樂) 성기와 정기(性情)를 기본으로 하고, 「확충론」과 「광제설」·「사상인변증론」에서는 사상체질별로 표출되는 행태와 심리를 밝히고 있다. 즉, 첫째 박통(博通)적 차원에서 체질별로 노력하면 생기는 마음인 주책(籌策)·경륜(經綸)·행검(行檢)·도량(度量), 둘째 독행(獨行)적 차원에서 체질별로 노력하면 생기는 마음인 식견(識見)·위의(威儀)·재간(材幹)·방략(方略), 셋째 박통적 차원에서 경계해야 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교심(驕心)·공심(矜心)·벌심(伐心)·과심(夸心), 넷째 독행적 차원에서 경계해야 하는 탐욕적인 마음인 탈심(奪心)·치심(侈心)·나

심(懶心)·절심(竊心), 다섯째 사상체질별 성(性)기적 특징인 진(進)·거(擧)·정(靜)·처(處), 여섯째 사상체질별 정(情)기적 특징인 승(勝)·웅(雄)·자(雌)·수(守), 일곱째 체질별 타고난 재능인 천시(天時)·세회(世會)·인륜(人倫)·지방(地方), 여덟째 체질별로 인간관계 시 잘하는 재능으로서 사무(事務)·교우(交遇)·당여(黨與)·거처(居處), 아홉째 사상체질별 장점인 강직(剛直)·소통(疏通)·단중(端重)·성취(成就), 열 번째는 사상체질별로 왜곡된 비인격체로서의 비인(鄙人)·박인(薄人)·탐인(貪人)·나인(儒人)과 인격체로서의 인자·의자·예자·지자를 연결시켜 심리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마 『동의수세보원』의 의학적 논리의 바탕에는 인간의 심리유형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한의학계에 집중되어있는 『동의수세보원』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체질 의학적 관점에 치우쳐 철학적 접근이 부족한 편이다. 또 철학적 입장에서 진행된 연구도 사상체질별 심리유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마의 사상의학 이론이 사상체질별 심리유형에 근거를 두었음을 밝히고, 이 사상체질별 심리유형론으로써 이제마 역시 역사적 인물들에 적용한 사례가 있듯이, 조선 초기 역사 기록에 나타난 인물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상체질 변별에서 특히 부족한 심리유형 부분을 보완하고 사상체질의학의 근본을 다시 세움으로써 사상체질의 연구 범주를 확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고와 같이 이제마의 철학과 그에 따른 심리유형을 논제로 한 선행연구에는 김인태·고병희·송일병의 「용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이제마의 지인론, 사상인과의 비교 고찰」, 임병학·최구원·윤수정의 「『東醫壽世保元』의 마음론과 『孟子』의 상관성 고찰-제3권 「公孫丑章句上」을 중심으로」, 임병학·최구원의 「일원철학의 마음론과 사상인의 마음공부(1)」, 허훈의 『동무 이제마의 철학 사상-심성론과 수양론』, 노상용의 「동무 四象醫學의 철학적 의의와 의학적 확장」등이 있고,¹⁾ 이제마의 철학을 논한 『격치고』에 관한 연구로

1) 김인태 외, 「용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이제마의 지인론, 사상인과의 비교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제8권 제2호, 사상체질의학회, 1996; 임병학 외, 「『東醫壽世保元』의 마음론과 『孟子』의 상관성 고찰-제3권 「公孫丑章句上」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제31권

는 박대식의 『격치고-사상의학적 인간학』, 지규용의 『동무 격치고 역해』, 황인선의 「이제마의 지행론 연구-『格致藁』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²⁾ 그러나 실제적 인물에 활용한 사례가 없다.

이에 연구 방법으로 제2장에서는 『동의수세보원』과 『격치고』를 바탕으로 사상체질별 심리특성을 고찰하고, 이제마의 『사상의학초본권(四象醫學草本卷)』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사상체질의 변별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사상체질별 심리유형을 총 10개 분야로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한국문집총간 등에서 조선 건국에 관한 역사적 인물, 이성계, 이방원, 정몽주, 정도전의 언행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10개 분야의 심리유형에 적용하여 사상체질 심리유형을 변별하여 논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분석하여 사상체질별 마음을 다스리고 성찰하는 안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체질 심리유형

이제마는 조선 말기의 유학자로 경사(經史)와 자집(子集)을 통해 역사적 인물의 심리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의수세보원』 제2권 「의원론」에서는 “옛날 의사들은 마음의 좋아함과 미워함으로 하고자 하는 것과 희노애락에 치우쳐 집착하여 병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³⁾고 하여, 모든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상의학초본권』 제2권 제4통에서는 “공자는 태양인, 우임금과 맹자는 태음인, 순임금과 자사는 소양인, 요임금과 증자는 소음인, 당태종은 소양인, 한광무는 소음인, 관중은 소양인, 황석공은

1호, 사상체질의학회, 2019; 임병학·최구원, 「일원철학의 마음론과 사상인의 마음공부(1)」, 『동서철학연구』 제88호, 한국동서철학회, 2018; 최대우, 『이제마의 철학』, 경인문화사, 2009; 허훈, 『동무 이제마의 철학 사상-심성론과 수양론』, 심산, 2008; 노상용, 「동무 四象醫學의 철학적 의의와 의학적 확장」, 세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 박대식, 『격치고-사상의학적 인간학』, 청계, 2000; 지규용, 『동무 격치고 역해』, 영림사, 2001; 황인선, 「이제마의 지행론 연구-『格致藁』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63호, 새한철학회, 2011.

3) 『東醫壽世保元』, 「의원론」, “蓋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偏着者 爲病.”

태양인, 제갈량과 오기는 소음인, 이태백은 태양인, 사마천과 두보는 태음인, 반고와 한유는 소음인, 왕희지는 태음인을 품부 받았다.”⁴⁾라고 하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사상체질로서 변별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마의 사상체질 변별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한 것인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마의 사상체질에 대한 근본 철학과 실용이 담긴 저서인 『동의수세보원』과 『격치고』의 내용에서 추출한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사상체질의 특성과 그에 따른 심리유형을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동의수세보원』 「성명론」에서 “턱에는 주책이, 가슴에는 경륜이, 배꼽에는 행검이, 배에는 도량이 있다.”⁵⁾라고 논한 박통적 차원에서 체질별로 노력하면 생기는 마음인 주책·경륜·행검·도량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한 의미는 『동무유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턱 [頷] 은 진해(津海)에 속하고, 귀의 근본인데, 귀는 폐에 속한즉, 태음인은 폐가 작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이 부족하나 탁연하게 노력하면 스스로 생각을 냄새 맡는 재주인 주책이 생긴다. 가슴 [臆] 은 고해(膏海)에 속하고, 눈의 근본인데, 눈은 비(脾)에 속한즉, 소음인은 비가 작기 때문에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부족하나 탄연하게 노력하면 스스로 맛을 변별하는 재주인 경륜이 생긴다. 배꼽 [臍] 은 유해(油海)에 속하고, 코의 근본인데, 코는 간(肝)에 속한즉, 태양인은 간이 작기 때문에 코로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일의 이치를 냄새 맡는 것이 부족하나 편연하게 노력하면 스스로 배움을 듣는 재주인 행검이 생긴다. 배 [腹] 는 액해(液海)에 속하고, 입의 근본인데, 입은 신(腎)에 속한즉, 소양인은 신이 작기 때문에 입으로는 사려 깊은 생각으로 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맛을 보는 것이 부족하나 회연하게 노력하면 스스로 물음을 보는 재주인 도량이 생긴다.”⁶⁾라고 하여, 턱·가슴·배꼽·배가 단순한 신체 일부의 관

4) 『四象醫學草本卷』, 제2권 제4통 “孔子稟太陽, 大禹孟子稟太陰, 帝舜子思稟少陽, 帝堯曾子稟少陰, 唐太宗稟少陽, 漢光武稟少陰, 管仲稟少陽, 黃石公稟太陽, 諸葛亮吳起稟少陰, 李太白稟太陽, 司馬遷杜甫稟太陰, 班固王谷韓退之稟少陰, 王羲之稟太陰.”

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頷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6) 李濟馬, 『東武遺稿』, “頷屬津海, 耳之根本, 而耳屬肺, 則太陰人肺小, 故耳無聽力, 卓然自有嗅思之才, 籌策也. 臆屬膏海, 目之根本, 而目屬脾, 則少陰人脾小, 故目無視力, 坦然自有味辨之

점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체질별 부족한 것을 경계하고 노력하면 생기는 심리유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즉, 자신이 부족한 것을 경계하고 노력하면 태음인은 상황에 맞추어서 이익과 손해를 잘 헤아리며 적절한 판단을 하게 되는 주책이 생기고, 소음인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에게 맞추어 배려하면서도 자신이 생각한 역량과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경륜이 생기고, 태양인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몸가짐을 살펴서 바르게 하고 솔선수범하게 되므로 행검이 생기고, 소양인은 좀더 생각을 신중히 하게 되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도량이 생기는 장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⁷⁾

둘, 「성명론」에서 “머리에는 식견이, 어깨에는 위의가, 허리에는 재간이, 엉덩이에는 방략이 있다.”⁸⁾고 논한 독행적 차원에서 체질별로 노력하면 생기는 마음인 식견·위의·재간·방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동무유고』에서 “머리〔頭〕의 이해(賦海)는 신(神)이 머무르는 곳이다. 정신〔神〕이 기(氣)가 되어서 광명과 조화를 만들어 스스로 식견이 생기게 된다. 이 구절에서 태양인을 논해야 하는데 특별히 소음인을 말하는 것은 대개 소음은 태양에서 나와서 어미의 신(神)을 빼앗기 때문이다. 어깨〔肩〕의 막해(膜海)는 영(靈)이 머무르는 곳이다. 신령〔靈〕이 기가 되어서 태도를 바르게 하고 엄숙하게 하면 스스로 위의가 생기게 된다. 이 구절에서 소양인을 논해야 하는데 특별히 태음인을 말하는 것은 대개 태음은 소양을 낳아서 자식의 영(靈)에 가탁하기 때문이다. 허리〔腰〕의 혈해(血海)는 혼(魂)이 머무르는 곳이다. 혼이 기가 되어서 현달하게 만들어 스스로 재간이 생기게 된다. 이 구절에서 태음인을 논해야 하는데 특별히 소양인을 말하는 것은 대개 소양은 태음에서 나와 어미의 혼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엉덩이〔臀〕의 정해(精海)는 백(魄)이 머무르는 곳이다. 백(魄)이 기가 되어 성대하게 하고 경영을 잘하게 만들어 스스

才，經綸也。臍屬油海，鼻之根本，而鼻屬肝，則太陽人肝小，故鼻無嗅力，便然自有聽學之才，行檢也。腹屬液海，口之根本，而口屬腎，則少陽人腎小，故口無味力，恢然自有視問之才，度量也。”
(이제마 저, 량병무·차광석 역, 『東武遺稿』, 해동의학사, 1999, 104쪽 참조)

7) 박장금, 『낭송 동의수세보원』, 북드라망, 2015, 107쪽 참조.

8)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畧.”

로 방략이 생기게 된다. 이 구절에서 소음인을 논해야 하는데 특별히 태양인을 말하는 것은 대개 태양은 소음을 낳아서 자식의 백(魄)에 의지하기 때문이다.”⁹⁾고 하였다.

따라서 사상체질별 특징과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생기는 장점인 식견·위의·재간·방략과 연결하여 보면, 소음인은 지식과 견문으로 사물을 잘 분별하는 식견, 태음인은 믿음직함과 위엄이 있는 행동인 위의, 소양인은 사람들의 화합과 단결을 시킬 수 있는 재능인 재간, 태양인은 일을 추진해나가는 방법과 계약인 방략이 노력하면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 「성명론」에서 “턱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가슴에는 자궁하는 마음이 있고, 배꼽에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마음이 있고, 배에는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¹⁰⁾라고 말한 박통적 차원에서 체질별로 경계해야 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교심·궁심·별심·과심에 대해서 살펴본다. 「성명론」에서 또한 “교만한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것이고, 궁하는 마음은 생각이나 계획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이며, 별하는 마음은 상대를 함부로 제압하려는 것이며, 과시하는 마음은 사사로운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¹¹⁾라고 밝혔다. 즉, 교심·궁심·별심·과심은 정신적 차원에서 이기적 사심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이는 용의 심리학적 유형론인 직관·감정·감각·사고의 부정적 의미에 해당된다.¹²⁾

한편 「확충론」에서 “태음의 턱에 마땅히 교심을 경계하여야 하며, 태음의 턱에 만약 교심이 없다면 절세의 주책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된다. 소음의 가

9) 李濟馬, 『東武遺稿』, 량명무·차광석 역, 해동의학사, 1999, 107쪽(“頭之賦海, 神之所舍也,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 自有識見則此句之論太陽人言, 而特學少陰人言者, 蓋少陰出於太陽, 而奪其母神故也. 肩之膜海, 靈之所舍也, 靈之爲氣, 嚴肅而酷態度, 自有威儀則此句之論少陽人言, 而特學太陰人言者, 蓋太陰生少陽, 而假其子靈故也. 腰之血海, 魂之所舍也, 魂之爲氣, 顯達而奇行裝, 自有材幹則此句之論太陰人言, 而特學少陽人言者, 蓋少陽出於太陰, 而憑其母魂故也. 腎之精海, 魄之所舍也, 魄之爲氣, 盛大而壯經營, 自有方略則此句之論少陰人言, 而特學太陽人言者, 蓋太陽生少陰, 而恃其子魄故也. 然則以我之短學彼之長, 以我之長教彼之短, 同是助成功歸正, 故曰無奪無侈無懶無竊之謂也.”).

10)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頤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11)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驕心, 驕意也, 矜心, 矜慮也, 伐心, 伐操也, 夸心, 夸志也.”

12) 박희관·이중화,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용의 심리학적 유형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제10권 제2호, 사상체질의학회, 1998, 47쪽 참조.

숨에 마땅히 긍심을 경계하여야 하며, 소음의 가슴에 만약 긍심이 없다면 질세의 경륜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된다. 태양의 배꼽에 마땅히 별심을 경계하여야 하며, 태양의 배꼽에 만약 별심이 없다면 질세의 행검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된다. 소양의 배에 마땅히 과심을 경계하여야 하며, 소양의 배에 만약 과심이 없다면 질세의 도량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된다.¹³⁾라고 하여, 앞의 주책·경륜·행검·도량을 교심·긍심·별심·과심과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논하였다. 즉, 사람의 턱·가슴·배꼽·배에는 사심인 교심·긍심·별심·과심이 숨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잘 극복하여 노력한다면 턱·가슴·배꼽·배 안에 있는 주책·경륜·행검·도량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다.

넷, 「성명론」에서 “머리에는 멋대로 계산하는 마음이 있고, 어깨에는 허세를 부리는 마음이 있고, 허리에는 게으른 마음이 있고, 엉덩이에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¹⁴⁾라고 논한 독행적 차원에서 체질별로 경계해야 하는 탐욕적 마음인 탈심·치심·나심·절심에 대해서 살펴본다. 즉, “멋대로 하는 마음은 이익을 빼앗는 것이고, 허세를 부리는 마음은 스스로는 높이는 것이고, 게으른 마음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고, 욕심은 사물을 흠치는 것이다.”¹⁵⁾라고 한 것이다.

또한 「확충론」에서 “소음의 머리에 마땅히 탈심을 경계하여야 하며, 소음의 머리에 만약 탈심이 없다면 대인의 식견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된다. 태음의 어깨에 마땅히 치심을 경계하여야 하며, 태음의 어깨에 만약 치심이 없다면 대인의 위위가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된다. 소양의 허리에 마땅히 나심을 경계하여야 하며, 소양의 허리에 만약 나심이 없다면 대인의 재간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된다. 태양의 엉덩이에 마땅히 절심을 경계하여야 하며, 태양의 엉덩이에 만약 절심이 없다면 대인의 방략이 반드시 여기에 있게 된다.”¹⁶⁾고 하

13)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陰之額 宜戒驕心 太陰之額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夸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14)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欲心.”

1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擅心, 奪利也, 侈心, 自尊也, 懶心, 自卑也, 欲心, 竊物也.”

16)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少陰之頭宜戒奪心 少陰之頭若無奪心大人之識見必在此也. 太陰之肩宜戒侈心 太陰之肩若無侈心大人之威儀必在此也. 少陽之腰宜戒懶心 少陽之腰若無懶心

여, 앞의 식견·위의·재간·방략을 탈심·치심·나심·절심과 연결해서 논하고 있다. 즉, 사람의 머리·어깨·허리·엉덩이에는 태심인 탈심·치심·나심·절심이 숨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잘 극복하여 노력한다면 머리·어깨·허리·엉덩이 안에 있는 식견·위의·재간·방략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섯, 「확충론」에서 “태양의 성기는 항상 나아가려 하고 물러서려 하지 않으며, 소양의 성기는 항상 행하려만 하고 놓으려하지 않으며, 태음의 성기는 항상 고요하려 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소음의 성기는 항상 머무르려 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¹⁷⁾라고 밝힌 체질별 성기적 특징인 진·거·정·처에 대해서 살펴본다. 즉, 물러서지 않으려는 태양인, 항상 새로운 것을 행하려고만 하는 소양인, 새로운 일보다는 항상 해오던 방식으로만 하려는 태음인, 어느 한 부분에 몰입하거나 머물러고 하는 소음인의 타고난 특징을 말한 것이다.

여섯, 「확충론」에서 “태양인의 정기는 항상 수컷만 되려고 하고 암컷은 되려 하지 않고, 소음인의 정기는 항상 암컷은 되려고 하고 수컷은 되려 하지 않고, 소양인의 정기는 항상 외적으로 이기려 하고 내적으로 지키려 하지 않고, 태음인의 정기는 항상 내적으로 지키려 하고 외적으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¹⁸⁾고 논한 체질별 정기적 특징인 승·응·자·수에 대해서 살펴본다. 즉, 체질별로 항상 수컷이 되고자 하는 태양인, 항상 이기고자 하는 소양인, 항상 지키고자 하는 태음인, 항상 암컷이고자 하는 소음인으로 표출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일곱, 「성명론」에서 “귀는 천시를 듣고, 눈은 세회를 보고, 코는 인륜을 냄새 맡고, 입은 지방을 맛보는 것이다.”¹⁹⁾라고 논한 체질별로 타고난 재능인 천시·세회·인륜·지방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기서 귀·코·눈·입은 단지 신체 일부의 표현이 아니라 직관적 능력·순발력·감각적 능력·논리적 사고력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확충론」에서 “태양인의 귀는 능

大人之材幹必在此也。太陽之腎宜戒竊心 太陽之腎若無竊心大人之方略必在此也。”

1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性氣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恒欲學而不欲措, 太陰之性氣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恒欲處而不欲出。”

18)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情氣恒欲爲雄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恒欲爲雌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恒欲外勝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恒欲內守而不欲外勝。”

1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히 천시에 넓게 통하고, 태양인의 코는 인륜에 넓게 통하지 못하고, 태음인의 코는 능히 인륜에 넓게 통하고, 태음인의 귀는 천시에 넓게 통하지 못하고, 소양인의 눈은 능히 세회에 넓게 통하고, 소양인의 입은 지방에 넓게 통하지 못하고, 소음인의 입은 능히 지방에 넓게 통하고, 소음인의 눈은 세회에 넓게 통하지 못한다.”²⁰⁾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태양인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의 이치를 판단하는 직관적 능력은 탁월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는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태음인은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직관적 판단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소양인은 순간순간 변화되는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소음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수시로 변화되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잘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덟, 『성명론』에서 “사람의 일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처, 둘째는 당여, 셋째는 교우, 넷째는 사무이다.”²¹⁾고 논한 인간관계 시 잘하는 체질별 능력인 사무·교우·당여·거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격치고』에서는 “사무는 과감하고 결단함만 같은 것이 없고, 교우는 넓고 관대함만 같은 것이 없고, 당여는 바르고 큰 것 같은 것이 없고, 처소는 편안하게 무리지어 있는 것만한 것이 없다.”²²⁾라고 밝히고 있다. 즉, 사무는 공정한가 불공정한가에 대한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는 것이거나, 주어진 일을 행할 때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한다는 것으로 소양인의 재능이고, 교우는 사람을 의도적인 목적을 갖지 않고 폭넓게 사귄다는 것으로 태양인의 재능이고, 당여는 뜻이나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한다는 것으로 소음인의 재능이고, 거처는 새로운 일이나 낯선 일보다는 익숙한 일을 하려고 하는 심리작용으로 태음인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²³⁾

20)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耳能廣博於天時而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陰之鼻能廣博於人倫而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能廣博於世會而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少陰之口能廣博於地方而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21)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22) 『格致藁』, 「反誠箴」, 兌箴, “事務 莫如果斷, 交遇 莫如寬弘, 黨與 莫如正大, 處所 莫如寧衆.”

23) 강용혁, 『사상심학』, 대성의학사, 2010, 57~76쪽.

아홉, 「사상인변증론」에서 “태양인의 성질은 소통을 잘하는 장점이 있으며 교우를 잘할 수 있는 재간이 있고, 소양인의 성질은 강직하고 굳센 장점이 있으며 사무를 잘할 수 있는 재간이 있고, 태음인의 성질은 성취를 잘하는 장점이 있으며 거처를 잘할 수 있는 재간이 있고, 소음인의 성질은 단정하고 중후한 장점이 있으며 당여를 잘할 수 있는 재간이 있다.”²⁴⁾고 논한 사상체질 별 장점인 강직·소통·단정·성취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는 「확충론」에서 “태양인의 비는 교우를 용감하게 통솔하지만 태양인의 간은 당여를 아름답게 세우지 못하고, 소음인의 간은 당여를 바로 아름답게 세우지만 소음인의 비는 교우를 원활하게 통솔하지 못하고, 소양인의 폐는 사무에 민첩하게 통달하지만 소양인의 신은 거처에 안정하지 못하고, 태음인의 신은 거처에 안정하지만 태음인의 폐는 사무에 민첩하게 통달하지 못한다.”²⁵⁾고 밝히고 있다.

즉, 태양인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소통을 잘하는 장점은 있으나,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소음인은 뜻이 같은 사람들과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잘 맺는 장점은 있으나,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소통을 잘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소양인은 강하고 민첩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소임도 잘하려는 장점은 있으나, 일을 끝까지 잘 성취해 내면서 안정적인 방법으로 지키려는 일은 잘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태음인은 새로운 일보다는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에 대한 성취하는 것을 잘하려는 장점은 있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나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특징으로 이해된다.

열, 「사단론」에서 “사람이 추구하는 욕심에는 네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예를 버리고 방종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고, 의를 버리고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지를 버리고 사사로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고, 인을 버리고 욕심이 극한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24)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太陽人性質 長於疏通而材幹能於交遇, 少陽人性質 長於剛武而材幹能於事務, 太陰人性質 長於成就而材幹能於居處, 少陰人性質 長於端重而材幹能於黨與.”

25)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太陽之肝不能雅立於黨與,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少陰之脾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少陽之腎不能恒定於居處,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太陰之肺不能敏達於事務.”

다.”²⁶⁾고 논한 사상체질별 왜곡된 비인격체로서 비인·박인·탐인·나인과 함께 인격체로서의 인자·의자·예자·지자에 대해서 살펴본다. 「확충론」에서 “태양인이 비록 수컷이 되기를 좋아하나 때로는 암컷이 마땅하다. 만약 온전히 수컷이 되지만 좋아하면 방종하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치게 된다. 소음인이 비록 암컷이 되기를 좋아하나 때로는 수컷이 마땅하다. 만약 온전히 암컷이 되지만 좋아하면 나태한 마음이 반드시 지나치게 된다. 소양인이 비록 외적으로 이기는 것을 좋아하나 때로는 내적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온전히 외적으로 이기는 것만 좋아하면 편협하고 사사로운 마음이 반드시 지나치게 된다. 태음인이 비록 내적으로 지키는 것을 좋아하나 때로는 외적으로 이기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온전히 안으로 지키기만 좋아하면 물질을 탐내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치게 된다.”²⁷⁾고 하여 사상체질별로 경계해야 할 마음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예를 버리고 방종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으로 태양인, 의를 버리고 안일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소음인, 지를 버리고 사사로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으로 소양인, 인을 버리고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사람을 태음인으로 사상체질별 왜곡되어 나타나는 비인격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格致叢』 「독행편」에서는 사상체질별 인격적 모습인 인자·의자·예자·지자를 논하였다.²⁸⁾ “예를 추구하려 하고 현달하고 영명하면서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자로 태양인, 인을 추구하려 하고 즐거움 속에서 편안함을 가져 너그럽게 포용하는 사람은 인자로 태음인, 의로움을 추구하려 하고 정돈된 몸가짐으로 주변을 가지런하게 하는 사람은 의자로 소음인, 지혜로움을 추구하려 하면서 막힘없이 통달하여 도량이 넓고 활달한 사람은 지자로 소양인”²⁹⁾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왜곡되면 지혜롭지 못해서 근심이

2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

2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人 雖好爲雄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放縱之心 必過也. 少陰之人 雖好爲雌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偷逸之心 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偏私之心 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物欲之心 必過也.”

28) 『格致叢』, 「獨行篇」, “禮者顯允, 仁者樂易, 義者整齊, 智者闊達.”

29) 임병학, 『동의수세보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7, 97쪽.

생겨 사사로이 꾸미는 사람은 소양인, 어질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태음인, 예의가 없으며 성냄이 생겨서 방종하는 사람은 태양인, 의로움이 없으며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나태한 사람은 소음인으로도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사상체질별 심리유형을 살피는 중요한 단서로서 10개 항목을 고찰하였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상체질별 심리유형 기준표

심리유형 순번	내용 구분	사상체질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1	노력하여 얻는 박통적 마음	행검	도량	주책	경륜
2	노력하면 생기는 독행적 마음	방략	재간	위의	식견
3	경계해야 하는 박통적 이기심	별심	과심	교심	금심
4	경계해야 하는 독행적 탐욕심	절심	나심	치심	탈심
5	체질별 성기적 특징	진	거	정	처
6	체질별 정기적 특징	응	승	수	자
7	천기적 재능	천시	세회	인륜	지방
8	인사적 재능	교우	사무	거처	당여
9	체질별 장점	소통	강직	성취	단중
10	체질별 왜곡된 비인격체와 성숙한 인격체	비인/예자	박인/지자	탐인/인자	나인/의자

3. 조선 건국에 관한 인물의 심리유형과 사상체질

1) 이성계의 심리유형 분석

고려말 1388년(우왕 14) 우왕의 명을 받아 요동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했던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하며 4대 불가론을 주장하였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둘째,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셋째, 많은 군사를 동원해 멀리 정벌에 나서면 왜구의 공격에 대비하기 어려우며, 넷째, 장마철이므로 활의 아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가 전염병을 앓을 수 있으니 옳지 못하다.”³⁰⁾ 라고 하였다. 회군을 한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 군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왕의 명을 거역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³¹⁾ 이처럼 자신의 결단과 직관력으로 회군을 결정한 것은 <표 1> 5항의 사상체질별 성기적 특징인 진·거·정·처 중에서 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확충론」의 “태양인의 성기는 항상 나아가려 하고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³²⁾와 「사상인변증론」의 “태양인의 (중략) 성질은 소통을 잘하고 과감한 결단이 있다.”³³⁾와 연결하여 설명된다. 따라서 이성계가 기세가 왕성하여 과감한 결단력과 뛰어난 직관력으로 한번 결정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양인의 심리유형의 특징으로 이해된다.³⁴⁾

『태조실록』 태조 1년 8월에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라고 물으니, 장자(長子)로써 세워야만 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야만 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렴이 말하기를, ‘막내아들이 좋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³⁵⁾라고 실록은 전하고 있다. 이는 <표 1> 4항의 독행적 차원에서 체질별로 경계해야 할 탐욕적 마음인 탈심·치심·나심·절심과 대응시켜 설명할 수 있다. 즉, 「성명론」의 “머리에는 멋대로 계산하는 마음이 있고, 어깨에는 허세를 부리는 마음이 있고, 허리에는 게으른 마음이 있고, 엉덩이에는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³⁶⁾

30) 『高麗史』, 卷137, 신우 14년 4월 을사. “以小逆大, 一不可. 夏月發兵, 二不可. 擧國遠征, 倭乘其虛, 三不可. 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 四不可.”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史料 Database(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bookId=%E4%B8%96%E5%AE%B6&types=r#articleList/kr_137r_0010_0040, 검색일: 2022.03.21.).

31) 정성식, 『정몽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66쪽.

32)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33)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太陽人(중략)性質, 疏通, 又有果斷.”

34) 이상훈,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개경 전투」, 『국학연구』 제2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268쪽.

35) 『太祖實錄』 卷1, 태조 1년 8월 20일 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08020_001, 검색일: 2022.03.21.).

36)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臀有欲心.”

와 “멋대로 하는 마음은 이익을 빼앗는 것이고, 치심은 스스로는 높이는 것이고, 게으른 마음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고, 욕심은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³⁷⁾을 연결하여 설명된다.

즉,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씨 소생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신하들에게 합당한 세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처럼 묻는 것으로, 태양인이 자신의 마음을 왜곡시키거나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법과 계략을 구하여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는 심리로 이해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위화도회군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위화도회군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대의를 거역하였을 뿐 아니라 나라가 위태롭고 백성이 피폐하며 원성이 사무쳤다. 그러므로 부득이 이렇게 한 것이다.”³⁸⁾라고 하여, 최영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태양인이 극복하고 경계해야 되는 절심의 심리와 이러한 절심을 잘 극복하면 방법과 계략이 생긴다는 방략”³⁹⁾ 사이에 일어나는 미묘한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왕세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한 내용과 위화도회군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를 종합하여 설명하면, 태양인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왜곡시켜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법과 계략을 구하여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되며, 태양인이 자신의 마음을 왜곡시키거나 숨기는 것을 반드시 극복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과 계략이 생기게 된다는 것으로, 태양인 심리유형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태조실록』 1권 「충서」에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는 보고를 듣고, “우리 집안은 원래 충효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너희가 마음대로 대신을 죽였으니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는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경서

37)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擅心, 奪利也, 侈心, 自尊也, 懶心, 自卑也, 欲心, 竊物也.”

38) 『高麗史』, 卷137, 列傳 50, 우왕 14년 6월. “최영을 고봉현으로 유배 보내고 정벌군은 사대 문 밖으로 철수하다.” 太祖謂瑩曰, “若此事變, 非吾本心. 然非惟逆大義, 國家未寧, 人民勞困, 冤怨至天故, 不得已焉.”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史料 Database (http://db.history.go.kr/id/kr_137_0010_0060_0100, 검색일: 2022.03.21.).

3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譬,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를 가르치는 것은 그 자식이 충성하고 효도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렇게 불효한 짓을 하니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⁴⁰⁾라고 꾸짖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말만을 토대로 한다면 <표 1> 7항의 체질별 타고난 재능인 천시·사회·인륜·지방 중에서 인륜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태양인이 성숙하게 된다면 자신이 부족한 인륜적 측면의 마음을 잘 닦고 성찰하게 되어, 오히려 부족한 인간의 도리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성계는 이방원이 자신의 아들이며 새로운 조선의 나라를 탄생시키려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신을 죽인 것은 공정하고 정당하지 못하며 인간의 도리를 크게 해쳤다는 확고한 판단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성계는 원래 태양인의 본능적 기능인 직관이 매우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인간의 도리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처럼 인륜을 중요시 하는 언행과 행동을 보인 것은 인격 수양으로 인해 성숙한 인격체의 유형으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조가 소싯적에 정안옹주 김씨가 담 머리에 앉아 있는 다섯 마리의 갈까마귀를 보고 쓰기를 청하니, 태조가 한 번 쏘아서 다섯 마리의 머리를 다 떨어뜨렸다.”⁴¹⁾는 『태조실록』과 『용비어천가』의 기록이 있다. 이는 이성계가 어릴 적부터 활을 쏘는 실력이 특별하였다는 것으로 한 번의 화살로 다섯 마리의 까마귀를 떨어뜨린 것은 단순히 연습을 많이 하여 활만 잘 쏘았다는 의미보다는 활을 쏘 당시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직관력과 판단력이 뛰어나서 활을 잘 쏘게 되었다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역시 <표 1> 7항의 천시·사회·인륜·지방 중에서 굳이 배우지 않아도 탁월한 직관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는 태양인의 특징인 천시의 개념과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정형(李廷馨, 1549~1607)이 쓴 『동각잡기(東閣雜記)』에서는 태조는 “항상 겸손함으로 자처하여 남보다 위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남과 더불어

40) 『太祖實錄』, 卷1, 총서 131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aa_000131, 검색일: 2022.03.21.).

41) 『太祖實錄』, 卷1, 총서 29번째 기사
(http://sillok.history.go.kr/id/kaa_000029, 검색일: 2022.03.21.).

어 활쏘기를 비교할 때에는 다만 상대방의 능력과 맞힌 횟수의 많고 적음을 보아서 겨우 상대방과 동등하게 할 뿐이었고, 이기고 짐이 없게 하였다. 권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한 한 번이나 더 맞히는데 지나지 않았다.”⁴²⁾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지 않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상체질 심리유형 중에서 주책·경륜·행검·도량 중의 행검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성계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솔선수범하면서도 자신의 재주를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성숙한 태양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복동생 두 명과 매제를 죽이고 동복형인 방간마저 유배를 보낸 이방원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던 이성계가 함흥에서 돌아올 때 태종 이방원이 교외에 나가 친히 맞이하는 장면에서도 이성계의 심리를 알 수 있다. 태종 이방원에게 신하 하륜이 말할길 “상황께서 성난 것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일(遮日)을 받치는 높은 기둥을 마땅히 큰 나무를 써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니, 태종이 이를 허락하여, 열 아름 정도나 되는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 태종이 면복을 입고 나아가려는 순간 태조 이성계가 노한 얼굴빛으로 가지고 있던 활과 화살로 힘껏 당겨서 쏘았으나 태종이 급히 차일 기둥으로 몸을 숨긴 덕에 화살은 기둥에 맞았다.⁴³⁾ 이를 통해 이성계의 심리는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이방원에게 억압과 통제하고 싶은 마음과 마음속에 담겨진 분노의 마음을 표출한 것으로, 활을 쏘아서라도 제압하려는 행동으로 이해된다. 이는 태양인의 마음이 왜곡되거나 성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기심인 별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비어천가』에서 “태조는 엄중하고 말수가 적고 신중하여 평상시에는 항

42) 『東閣雜記』, “常以謙退自居, 不欲上人, 每射輒, 但視其偶能否, 籌之多少, 纔令與偶相等而已, 無所勝負, 人有勸之者, 亦不過一籌之加耳.”(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42A_0010_000_0010&viewSync=TR, 검색일: 2022.03.21.).

43) 『燃藜室記述』, 제1권. 「太祖朝故事本末」. “태조의 함흥 주필”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H&cate2=&dataGubun, 검색일: 2022.03.21.).

상 눈을 감고 앉아 있었으므로 바라보기에 두려웠으나 사람을 대하게 되면 혼연히 한 덩어리의 온화한 기운으로 화합하였기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였다.”⁴⁴⁾라고 이성계의 성품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이는 이성계가 평소에 말이 별로 없어 근엄하고 신중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아주 친화적으로 하였고,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항상 화합에 중점을 두었던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⁵⁾ 이는 <표 1>의 8항의 체질별 인간관계 시 잘하는 재능인 사무·교우·당여·거처 중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으며, 의도적인 목적도 갖지 않고 폭넓고 다양하면서 너그럽게 소통을 잘한다는 교우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은 성숙한 태양인의 장점이라고 설명된다.

『동각잡기』에서는 “함주에서 큰 소가 서로 싸우는데, 여러 사람이 소싸움을 말리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혹은 불을 붙여 던졌지만, 말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태조가 두 손으로 두 소를 나누어 붙드니, 소가 싸우지 못하였다.”⁴⁶⁾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두 마리의 소를 양손으로 붙잡고 싸움을 멈추게 했다는 것이며, 출전한 전투에서도 한 번도 물러서는 법이 없이 패배하지 않았던 이성계의 탁월한 담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표 1>의 5항 체질별 성기적 특징인 진·거·정·처 중에서 진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성계의 모습은 「확충론」의 “태양의 성기는 항상 나아가려고 하고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⁴⁷⁾와 연결되는 것으로 배짱과 담력이 있는 이성계는 전투에서는 항상 나아가려고 하고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는, 태양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4) 『燃藜室記述』, 제1권. 「太祖朝故事本末」. “잡룡 때 일”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0A_0020_010_0030, 검색일: 2022.03.21.).

45) 박영규, 『조선왕 시크릿 파일』, 옥당북스, 2018, 27~31쪽.

46) 『東閣雜記』. “於咸州, 大牛相鬪, 衆人止之, 不能得, 或脫衣或燃火, 以投之, 猶不能禁, 太祖以兩手分持之, 牛不能鬪.”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42A_0010_000_0010, 검색일: 2022.03.21.).

4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2) 이방원의 심리유형 분석

「사상인변증론」에서는 사상체질별 체형과 마음 작용을 연결하여, 태양인의 성질은 소통과 과감한 결단력이 장점이고, 소양인은 용맹하고 재빠른 표예호용(剽銳好勇)이 장점이며, 태음인과 소음인에 대해서는 용모사기(容貌詞氣)를 언급하면서, 태음인은 말을 잘하고 무슨 일에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소음인은 언행이 자연스럽고 사소한 재주가 있다고 하였다.

정종 2년 4월 신축일에 대사헌 권근(權近, 1352~1409) 등이 “병권은 국가의 큰 권세이니 마땅히 통속해야지, 흠어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상소하였는데, 상소 당일 이방원이 “여러 절제사가 거느리던 군마를 해산하여 모두 그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⁴⁸⁾라는 기록 내용으로, 「사상인변증론」에서 논하고 있는 “소양인의 성질은 강직하고 굳센 장점이 있으며 사무를 잘하는 재간이 있다.”⁴⁹⁾는 내용과 연결할 수 있다. 즉, 이방원(李芳遠, 1367~1422)이 상소가 올라온 당일 사병을 혁파했다는 것은 이방원의 민첩한 결단력과 강직함을 알 수 있고, 일단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력과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는 소양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⁵⁰⁾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가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⁵¹⁾ 1418년 8월에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 세종의 장인인 심온(沈溫, 1375~1418)이 “지금 사대부들이 나를 보면 모두 은근한 뜻을 보내니 심히 두렵습니다. 마땅히 손님을 사절하고 조용히 여생을

48) 『定宗實錄』, 卷4, 정종2년 4월 6일 신축 9번째 기사. 한국고전종합DB (http://sillok.history.go.kr/id/kba_10204006_009, 검색일: 2022.03.21.).

49)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少陽人性質, 長於剛武而材幹, 能於事務.”

50) 이방원은 정도전이 추진하려 했던 사병혁파 조치에는 반발하여 그를 제거하였는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오히려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사병혁파는 필수적인 과업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야심이 많았던 이방원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그의 사상체질 심리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김훈식, 「역사 속의 라이벌 정도전과 이방원」, 『역사비평』 제5호, 역사비평사, 1997, 407쪽 참조함).

51) 박홍규·방상근, 「태종 이방원의 권력정치-양권의 정치술을 중심으로」, 『한국학』 제2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26~27쪽.

보내야겠습니다.”라고 세종에게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태종은 안심하고 심온을 사은주문사(謝恩奏聞使)겸 영의정 부사로 임명한다. 그러나 명나라로 떠나기 전에 거창한 전별식을 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태종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태종의 심리유형을 잘 분석할 수 있다. 당시 태종은 이 좌의정 박은에게 “나의 여생은 많지 않고 본 것은 많으므로 이런 대간은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⁵²⁾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심온을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계기로 ‘강상인의 옥사’⁵³⁾까지 일어났으며 이는 또 심온 제거에 이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표 1> 5항의 진·거·정·처와 6항의 승·응·자·수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확충론」에서 논하고 있는 성기적 특징인 “소양인은 항상 행하려 하고 농으려 하지 않으며”⁵⁴⁾와 정기적 특징인 “소양인은 항상 밖에서 이기고자 하고 안에서는 지키고자 하지 않고”⁵⁵⁾와 연결하여 설명된다. 따라서 이방원이 세종의 입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대가 어떤 관계의 사람이든 반드시 이겨서 승복시켜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만들어서 원인을 제거하려는 소양인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정몽주의 심리유형 분석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언행과 심리유형에 대하여 세 가지 사례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명나라 사신을 전송하는 시 <送周典簿倬還朝>에 “명나라의 덕성 교화가 동쪽 바다에 미치니 제후 나라 해마다 황제 뜰에 조공하네, 천자가 새로운 은총을 멀리 반포하고 사신은 예전 배려 계속 인정하

52) 『燃藜室記述』 제3권, 「世宗祖故事本末」 참조.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00A_0040_010_0040, 검색일: 2022.03.21.).

5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姜尙仁一獄’ 참조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1191>, 검색일: 2022.03.21.).

54)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55)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不欲內守”

네, 계림에는 나뭇잎도 마음 함께 붉고 용수산에는 산 빛도 눈과 함께 푸르렀네, 동이와 중화가 이제 섞이어 하나로 되었으니 헤어져도 눈물 자주 흘릴 것 없으리.”⁵⁶⁾라고 하여, 천자의 은총에 감사하다는 뜻과 동이와 중화가 하나로 되었다는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표 1>의 10항 사상체질별 왜곡된 비인격체와 인격적 모습에 연결시킬 수 있다. 위의 시에서 ‘천자가 중화의 문물로 은덕을 베푸니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내용은 도리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태음인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예의에 대한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 자칫 너그러움과 사랑스러운 인의 마음은 부족할 수 있는 태음인의 심리를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인과 예를 성숙시킨 인격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우왕 원년(1374)에 명나라 사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명나라는 조공을 빌미로 침략 위협을 하고, 조정에서는 진평중(陳平仲)을 사신으로 보내어 일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진평중은 임견미(林堅味, 미상~1388)에게 뇌물을 주고 병을 구실로 사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때 왕이 정몽주를 불러 직접 말하기를 “요즘 우리나라가 명나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데 이는 모두 대신들이 잘못된 탓이다. 그대는 고금 역사에 두루 통하고 또 내 뜻을 잘 알고 있으므로, 진평중이 병 때문에 사신으로 갈 수 없다고 하니, 대신하여 그대를 보낼까 하는데 그대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에 정몽주가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천자께 조회하는 일이지 않습니까?”⁵⁷⁾라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다. 위의 인용문은 임금이 뭐라 하든 어떤 일을 시키든, 심지어 어떠한 피해를 주거나 무례를 당해도 원망하기보다 신하로써 임금에게 충절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 『포은집』에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술을 권하면서 ‘하여가’를 붙였는

56) 『圃隱集』卷2, 「送周典簿倬還朝」, “大明聲教暨東溟, 藩國年年貢帝庭, 天子遠頒新寵典, 使臣來續舊圖經, 鷄林樹葉心同赤, 龍首山光眼共青, 夷夏卽今歸混一, 臨分不用涕頻零.”

57) 『高麗史』, 卷117, 列傳 30, 우왕 10년 “정몽주가 명에 사신으로 가다.”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史料 Database(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bookId=%E5%88%97%E5%82%B3&types=r#detail/kr_117r_0010_0010_0040, 검색일: 2022.03.21.).

데,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⁵⁸⁾고 하여, ‘단심가’로 화답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어도 임금을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고 바치겠다는 의지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절의의 충신과 기백이 넘치는 장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⁵⁹⁾ 이는 <표 1>의 2항 독행적 차원에서 체질별로 노력하면 생기는 마음인 식견·위의·재간·방략 중에서 ‘위의’와 7항의 체질별 타고난 재능인 천시·세회·인륜·거처 중에서 ‘인륜’의 의미를 함께 연결해서 설명된다.

위에서 언급한 두 인용문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정몽주는 신하로써 지켜야 하는 인간의 도리를 중요시하고 임금을 위해서 끝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기백이 넘치는 충신의 모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도리인 인륜과 웅대한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위의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태음인의 심리유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삼봉집』에서 정도전이 포은 정몽주의 학문 태도에 대해서 “도학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전장문물이 락건(洛建)⁶⁰⁾에까지 따라 올라가고 은주(殷周)에까지 점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다 선생에게서 시작된 것이니, 나라를 다스려 보존하고 충성을 다하여 인(仁)을 이룬 것은 선생의 여사(餘事)이다.”⁶¹⁾라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하의 본분과 의무를 중시하고 정주학을 신봉하는 정몽주의 당시 세평을 알 수 있다.

「사단론」에서 “인을 버리면 탐욕적인 사람”⁶²⁾을 「확충론」에서는 “비록 내적으로 지키는 것을 좋아하나 때로는 외적으로 이기는 것이 마땅하니 만약 온전히 내적으로 지키기만 좋아하면 물질을 탐내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치게

58) 『圃隱集』, 「文詩」, 「丹心歌」, “此身死了死了, 一白番更死了, 白骨爲塵土, 魂白有也無, 向主一片丹心, 寧有改理也歎.”

59) 김상일, 「정몽주의 인물됨과 그 전승」, 『동악어문학』 제34집, 동악어문학회, 1999, 241쪽.

60) 程朱學을 뜻한다. 정호·정이는 洛陽에서, 주희는 建陽에서 수학하였으므로 ‘洛建’이라 하였다.

61) 권상우, 「포은 정몽주와 포은 낙중학맥의 도학사상」, 『한국학논집』 제4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92~93쪽.

6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

생긴다.”⁶³⁾고 논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인을 버리면 탐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몽주가 나라를 다스려 보존하고 충성을 다하여 인을 이룬 것이다.”라는 정도전이 평가한 내용은 태음인이 부족할 수 있는 인의 특징을 스스로 극복했다는 칭찬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정몽주는 인의예지 중에서 예의 성품은 잘 가지고 있지만 인의 성품은 부족하기 쉬운 태음인의 심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를 노력하여 예의 성품과 인의 성품을 극복한 성숙한 태음인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4) 정도전의 심리유형 분석

고려 말 친원 정책을 주장하는 이인임(李仁任, 미상~1388), 경복흥(慶復興, 미상~1380) 등의 구세력과 친명정책을 주장하는 이색(李穡, 1328~1396), 정몽주,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신세력 간의 갈등이 있던 시기의 일이다. 즉, 북원에서 사신이 온다고 하자 정도전은 권근, 이송인 등의 신흥사대부와 함께 반대를 하고 이인임, 경복흥 등의 구세력은 반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도전에게 원나라 사신 접대를 명하는 사건이다. 이에 격분한 정도전은 경복흥을 찾아가서 “(전략) 나는 원나라 사신의 목을 베어 오든지, 아니면 오라 지워서 명나라로 보내겠소, (후략).”⁶⁴⁾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정도전은 귀양에 처해져서 사대부들이 모여 정도전을 배울 때 배상도가 찾아와서 이인임에게 선처를 구했으니 잠시 기다리라는 염흥방(廉興邦, 미상~1388)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 정도전은 “나의 말이나 시중의 분노는 각자 자신의 소신을 고집하는 것으로 다 나라를 위한 것이요. 지금 왕명이 있었는데 어찌 공의 말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까?”⁶⁵⁾라고 말하고 유배지로 떠났다고

63)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則放縱之心 必過也.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偷逸之心 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偏私之心 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物欲之心 必過也.”

64) 『高麗史節要』, 卷30, 辛酉 1(辛禱一) “(전략) 我當斬使首而來, 不爾則縛送于明, (후략).”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史料 Database(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j&bookId=%EA%B6%8C30&types=r#articleList/kj_030r_0010_0020_0050, 검색일: 2022.03.21.).

65) 『高麗史』, 卷119, 列傳 32, “정도전이 북원과의 통교를 반대하다가 유배되다.” 국사편찬위

『고려사』 「정도전 열전」에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정도전이 귀양에 처해지는 광경과 염흥방의 회유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 정도전의 기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성격이자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⁶⁶⁾ 즉,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여 타협을 모르고 남과 융화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자신의 판단은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이처럼 정도전이 귀양을 가게 되니 부인이 원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 때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당신은 평일에 글을 부지런히 읽으시느라 아침에 밥이 끓든 저녁에 죽이 끓든 간섭치 않아 (중략) 뜻밖에도 국법에 저촉되어서 이름을 더럽히고 행적이 깎이며, 몸은 남쪽 변방에 귀양을 가서 풍토병에 걸리고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문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현인군자도 진실로 이러한 것입니까?” 이에 정도전은 “(전략) 그대는 집을 걱정하고 나는 나라를 근심하는 것 외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소? 각각 그 직분을 다할 뿐이며 그 성패의 날카로움과 무덤, 영욕의 득실에 있어서는 하늘이 정한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무엇을 근심하겠소?”⁶⁷⁾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다. 이러한 답장 내용으로 볼 때 합리적·논리적으로 부인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자신만의 논리와 판단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여 상대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나타낸다. 또는 무형의 욕심들이 과하여 지나친 자기주장으로 드러나는 특징으로,⁶⁸⁾ 이 역시 사상체질별 탐욕심인 탈심에 해당된

원회, 고려시대史料 Database(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bookId=%E5%88%97%E5%82%B3&types=r#articleList/kr_119r_0010_0010, 검색일: 2022.03.21.).

66) 이덕일, 『정도전과 그의 시대』, 옥당, 2018, 57쪽.

67) 『三峯集』, 卷4, 「家難」, “使謂予曰, 卿於平日, 讀書孜孜, 朝饔暮飧, 卿不得知, (중략) 竟觸憲網, 名辱迹削, 身竄炎方, 呼吸瘴毒, 兄弟顛踏, 家門蕩析, 爲世戮笑, 至於此極, 賢人君子, 固如是乎.” 予以書復 “(전략) 子憂其家, 我憂其國, 豈有他哉, 各盡其職而已矣, 若夫成敗利鈍榮辱得失, 天也, 非人也, 其何恤乎.”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BT_0024A_0070_020_0060&viewSync=OT, 검색일: 2022.03.21.).

68) 강용혁, 『사상심학』, 대성의학사, 2010, 119~120쪽.

다. 또한 상대의 기분이나 처지는 살펴보지 않고 내가 옳으니 내가 생각한 대로 이해하라는 식의 이기적인 마음의 긍심도 있다.⁶⁹⁾ 이는 <표 1> 사상체질별 심리유형의 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귀양지에서 정도전이 농부 은자와 만나 대화하는 『삼봉집』 「답전부」의 내용을 통해서 비교적 확연하게 드러난다. “(전략) 그렇다면 그대의 죄목을 나는 알겠도다. 자신의 힘이 부족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큰소리치기를 좋아하고, 그 시기의 불가함을 알지 못하고 바른 말하기를 좋아하며, 지금 세상에 옛사람을 사모하고 아래에 처하였으나 위를 거스른 것이 죄를 얻은 원인이로다.”⁷⁰⁾라고 은자가 정도전의 사람 됨됨이와 그 죄목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즉, 농부가 정도전의 말과 행동을 보고 <표 1> 4항의 독행적 차원에서 체질별 경계해야 하는 탐욕적인 마음 중에서 탈심에 해당하는 성격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족한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큰소리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보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합리화했다는 것으로 소음인의 탈심의 특징을, “불가함을 알지 못하고 바른 말하기를 좋아하며, (중략)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위를 거스른 것”으로 표현한 것은 항상 자기 판단의 옳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 또한 사상체질별 탐욕심의 하나인 탈심의 특징에 해당된다.

이상의 정도전의 언행을 종합해보면, 명예욕이나 자기주장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옳은 일에서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위의를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여 남과 융화하기도 어렵고 자신이 항상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한편으로는 정도전이 없었으면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는 개국 군주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평소에 세밀하게 분석하여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소음인의 타고난 재능을

69) 위의 책, 164쪽.

70) 『三峯集』, 卷4, 「答田父」. “(전략) 我知之矣, 不量其力之不足而好大言, 不知其時之不可而好直言, 生乎今而慕乎古, 處乎下而拂乎上, 此豈得罪之由歟.”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0024A_0070_020_0040&viewSync=OT, 검색일: 2022.03.21.).

지냈고,⁷¹⁾ 때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자기의 방식대로 합리화하며, 자신만의 논리와 판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성숙하지 못한 소음인의 심리유형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4. 맺는말

본고는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사상체질 의학적 논리의 바탕에는 인간의 심리유형에 대한 실용적이며 철학적인 사고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I장에서 『동의수세보원』외에도 『격치고』, 『동무유고』 등에 나타난 내용에서 사상체질별 심리유형을 10개 항목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사람의 타고난 체질에 따라 특징과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심리유형을 구분하여 노력하고 경계해야 할 내용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III장에서 조선 건국에 관한 역사적 인물 중에서 이성계, 이방원, 정몽주, 정도전의 언행을 대응하여 사상체질 심리유형을 분석하였다.

10개 항목의 사상체질별 심리유형에 의하면 첫째, 태음인은 주책이, 소음인은 경륜이, 태양인은 행검이, 소양인은 도량이 넓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소음인은 식견이, 태음인은 위의가, 소양인은 재간이, 태양인은 방략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태음인은 교심을, 소음인은 공심을, 태양인은 별심을, 소양인은 과심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넷째, 소음인은 탈심을, 태음인은 치심을, 소양인은 나심을, 태양인은 절심을 경계해야 된다. 다섯째, 태양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양인은 항상 일을 만들라고 하는 것을, 태음인은 항상 고요하게 있으려는 것을, 소음인은 항상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것을 잘한다. 여섯째, 태양인은 항상 남성다움을, 소양인은 항상 이기려고 하는 것을, 태음인은 항상 지키려는 것을, 소음인은 항상 여자다움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다. 일곱째, 태양인은 천시를, 소양인은 세회를, 태음인은

71) 이덕일, 『부자의 길, 이성계와 이방원』, 옥당, 2014, 150쪽.

인륜을, 소음인은 지방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잘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덟째, 태양인은 교우를, 소양인은 사무를, 태음인은 거처를, 소음인은 당여를 항상 하려는 특징이 있다. 아홉째, 태양인은 소통을, 소양인은 강직을, 태음인은 성취를, 소음인은 단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열 번째, 태양인은 더러운 마음을, 소양인은 천박함 마음을, 태음인은 탐욕스런 욕심을, 소음인은 나태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성계는 위화도회군 사건을 통해 기세가 왕성하여 과감한 결단력과 직관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는 심리가 파악되었다. 한편 왕세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한 내용과 최영에게 위화도회군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왜곡시켜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법과 계략을 구하여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는 심리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왜곡시키거나 숨기는 것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방법과 계략을 구사하게 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또 대의명분 보다 인간의 도리를 중요시하는 언행, 극도로 분노의 마음을 이방원에게 활을 쏘아서 제압하려는 행동, 그리고 두 마리의 소를 양손으로 붙잡고 싸움을 멈추게 했다는 배짱과 담력은 태양인의 진(進), 웅(雄)이 표현된 심리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성계는 태양인의 심리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방원은 위기 속에서 신속하면서 강력한 결단력을 가지고 주저 없이 행동, 상소가 올라온 당일 바로 사병을 혁파하는 민첩한 결단력과 강직함, 일단 목표가 한번 정해지면 망설임 없이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심리가 이해되었다. 또한 왕권 강화라는 목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제거하는 행동력은 상대를 무조건 이기려는 심리적 특징으로 볼 때 이방원은 소양인의 심리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정몽주는 언행의 내용 속에서 인간의 도리를 소중히 여기는 심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단심가'에서 역시 인간의 도리와 웅대한 기상이 있었다. 정도전이 정몽주를 평가한 내용 속에서는 정몽주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너그러움과 포용력을 지닌 인의 성품을 얻었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정몽주는 태음인의 심리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정도전은 명예욕이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욕심이 근본적으로 있다고 이해

되었고, 농부와 정도전의 대화 속에서는 정도전이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여 남들과 타협과 융화할 줄 모르며, 항상 옳은 판단만 한다는 생각에 빠져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옳은 일에서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특징으로 볼 때 정도전은 소음인의 심리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조선 건국에 관한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체질 심리유형 연구를 통해서 신체적 조건 위주의 의학적 사상체질 변별방법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의 심리유형을 통해 사상체질을 변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이 사상체질별 심리유형 10항목이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이나 사상체질의학과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많은 분야에서도 활용되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격치고(格致藁)』,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사상의학초본권(四象醫學草本卷)』,
『삼봉집(三峯集)』,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포은집(圃隱集)』

2. 논저

강용혁, 『사상심학』, 대성의학사, 2010.
권상우, 「포은 정몽주와 포은 낙증학맥의 도학사상」, 『한국학논집』 제45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김상일, 「정몽주의 인물됨과 그 전승」, 『동악어문학』 제34집, 동악어문학회, 1999.
김인태·고병희·송일병, 「응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이제마의 지인론, 사상인과의 비교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제8권 제2호, 사상체질의학회, 1996.
김훈식, 「역사 속의 라이벌 정도전과 이방원」, 『역사비평』 제5호, 역사비평사, 1997.
노상용, 「동무 사상의학의 철학적 의의와 의학적 확장」, 세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박대식, 『격치고-사상의학적 인간학』, 청계, 2000.
박영규, 『조선왕 시크릿 파일』, 옥당북스, 2018.
박장금, 『낭송 동의수세보원』, 북드라마, 2015.
박흥규·방상근,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의 권력정치-양권(揚權)의 정치술(政治術)을 중심으로」, 『한국학』 제2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박희관·이종화,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응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제10권 제2호, 사상체질의학회, 1998.
이덕일, 『정도전과 그의 시대』, 옥당, 2018.
이부영, 『분석심리학 ;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2005.
이상훈,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개경 전투」, 『국학연구』 제2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 이제마 저, 량병무·차광석 역, 『동무유고(東武遺稿)』, 해동의학사, 1999.
- 이제마,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영인본, 행림출판, 1996.
- 임병학, 『동의수세보원, 주역으로 풀다』, 골든박스, 2017.
- 임병학·최구원, 「일원철학의 마음론과 사상인의 마음공부(1)」, 『동서철학연구』 제88호, 한국동서철학회, 2018.
- 임병학·최구원·윤수정, 「『東醫壽世保元』의 마음론과 『孟子』의 상관성 고찰-제3권 「公孫丑章句上」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제31권 1호, 사상체질의학회, 2019.
- 정성식, 『정몽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조동욱, 「동무 이제마 사단론의 역철학적 고찰」,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지규용, 『동무 격치고 역해』, 도서출판 영림사, 2001.
- 최대우, 『이제마의 철학』, 경인문화사, 2009.
- 허 훈, 『동무 이제마의 철학 사상-심성론과 수양론』, 심산, 2008.
- 황인선, 「이제마의 지행론 연구-『格致藁』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63호, 새한철학회, 2011.

3. 기타

- 국사편찬위원회(<http://www.history.go.kr>, 검색일: 2022.03.21.).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검색일: 2022.03.21.).

〈Abstract〉

**A Study of Psychological Type of Sasang Constitution
that Appeared in Donguisusebowon**
- Based on Historical Figures Related to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

Choi, Gu-W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sychological types of each Sasang constitution based on the Sasang philosophy and Sasang Constitution revealed in Donguisusebowon of Yi Je-ma, focusing on historical figures related to the founding of Joseon. Since practical and philosophical thinking of psychological types is centered on the basis of the medical logic about Sasang constitution of Yi Je-ma's Donguisusebowon, it can be said that the words and action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thus, the efforts and caution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Hence it can be possible to diagnose historical figures' Sasang constitutions and psychological types by analyzing their words and actions. Therefore, the psychological types of each Sasang constitution were classified into 10 items, and the words and actions are extracted from documents and anthologies of historical figures in the era of foundation of Joseon dynasty, such as Yi Seong-gye, Yi Bang-won, Jeong Mong-ju, and Jeong Do-jeon. Their words and actions were matched with the 10 items so that their psychological types based on Sasang constitutions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analyze the characters more diversely and comprehensively by supplementing the deficiencies in portions of psychological types in the Sasang constitution of historical characters which had been fragmentarily done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figures. By this analysis, the method of introspecting oneself's mind can also be proposed. Although this study had

a limitation caused by records and documents, it is an attempt at a new approach to Sasang somatic medicine, and ultimately, it is meaningful to reestablish the basis of Sasang somatic medicine and expand the study of Sasang constitution.

* Key Words: Donguisusebowon, Lee Jema's Philosophy of Sasang, Four Types Constitution & Psychological Types, Historical Characters,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 논문투고일: 2022년 6월 10일 · 심사완료일: 2022년 7월 11일 · 게재결정일: 2022년 7월 25일